2018
국내 주요산업 전망

참! 좋은 은행
IBK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

2018 국내 주요산업 전망

CONTENTS

I. 반도체 4

II. 석유화학 7

III. 디스플레이 10

IV. 철강 13

V. 스마트폰 16

VI. 건설 19

VII. 도소매 22

VIII. 자동차 25

IX. 조선 28

X. 해운 31

2018 국내 주요산업 전망 [요약]

산업	2017년	2018년	2018년 전망 내용
반도체	☀️	☀️	수요증가로 반도체 경기호황 지속
석유화학	☀️	🌤️	글로벌 공급증가로 국내 생산 및 수익성이 다소 둔화
디스플레이	🌤️	🌤️	OLED 중심의 생산확대로 시장 성장세는 지속되나 경쟁은 심화
철강	🌤️	🌤️	중국의 철강 구조조정 영향으로 국내 철강 수출·생산 증가세 지속
스마트폰	☁️	🌤️	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사의 판매증가 예상
건설	🌤️	☁️	공급과잉 우려, 부동산 투기억제대책 시행 등으로 다소 둔화
도·소매	☁️	☁️	온라인 중심으로 소폭 회복세
자동차	☁️	☁️	완성차의 내수·수출은 정체, 해외 현지 생산·판매는 부진 지속
조선	☔	☔	탱커와 컨테이너선 수주증가에도 생산은 여전히 부진
해운	☔	☔	해운 물동량은 증가하나, 국내 해운사 수익 개선은 제한적

주 : ☀️ 맑음(Excellent), 🌤️ 구름 조금(Good), ☁️ 흐림(Bad), ☔ 비(Worst)

1. 반도체 [현황]

글로벌 수요급증으로 수출 및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진 한 해

✓ **ICT 기기 활용도 증가가 D램 및 낸드플래시 수요를 견인하며 사상 최대의 수출 기록**

- 스마트폰의 高사양화, SSD용 수요확대, 인공지능, 사물인터넷 등 첨단 반도체 수요급증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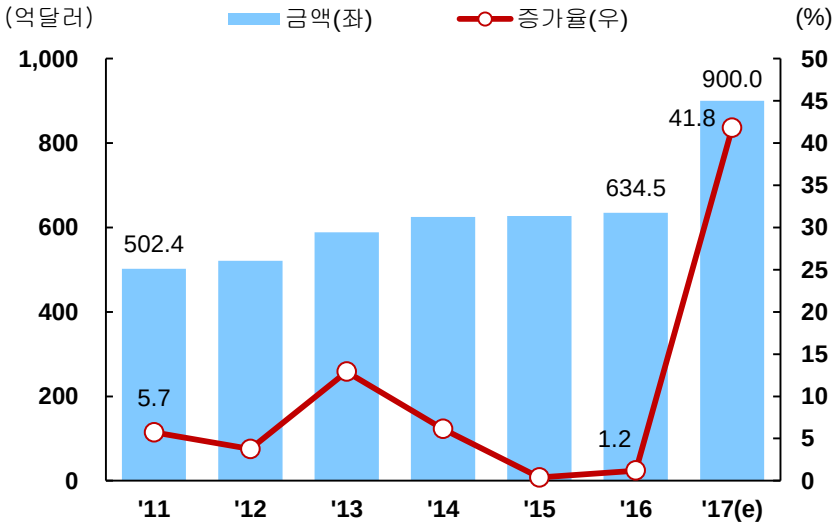
✓ **단가 상승 및 수요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주력업체의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**

※ 단가('16.8 → '17.8, 달러) : D램(DDR4 4Gb) 1.9 → 3.6, 낸드플래시(64Gb) 2.93 → 4.35

- '16년 다소 둔화된 영업이익률도 큰 폭으로 반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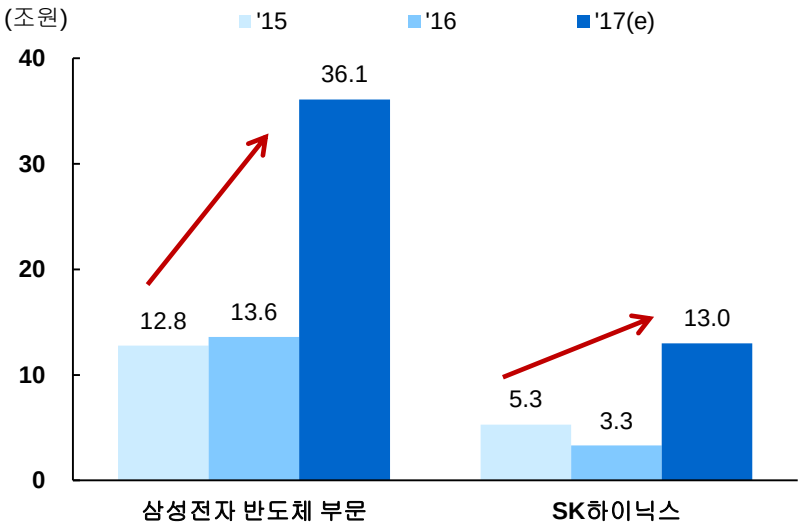
※ 영업이익률(%) : 삼성전자 14.1('15) → 13.7('16) → 22.8('17.상), SK하이닉스 28.4('15) → 19.1('16) → 42.5('17.상)

< 반도체 수출 >



주 : 전자집적회로, 다이오드, 인쇄회로, 기억장치 부문 수출금액 합계기준, 전년동기대비, 자료 : 한국무역협회

< 반도체 부문 국내 주력업체 영업이익 >



자료 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, FnGuide

1. 반도체 [전망]

4차 산업혁명 관련 신규 수요증가로 반도체 경기호황은 지속될 전망

✓ **4차 산업혁명 관련 메모리 수요와 高사양화 요구에 따라 반도체 생산 확대 지속 예상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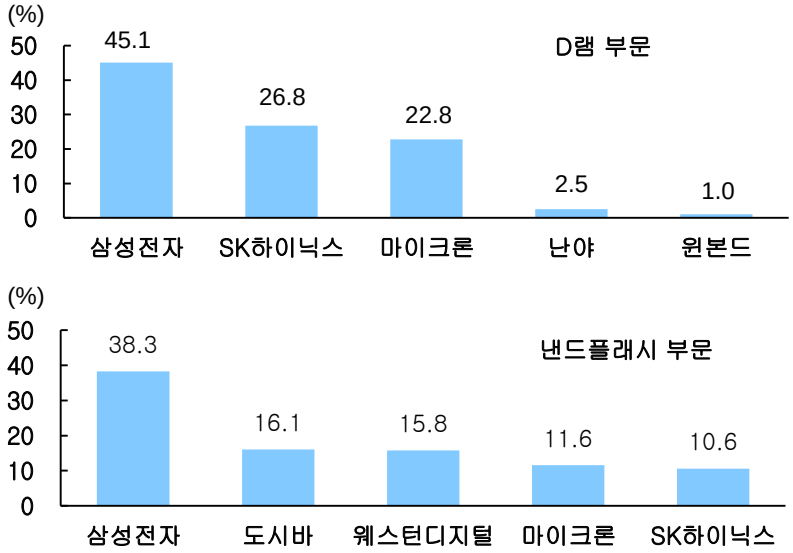
- 글로벌 수요급증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수 한정으로 공급부족 현상 지속
- 단, '18.하부터 중국내 반도체 생산이 개시되는 경우 가격상승 둔화 가능성

* 중국 기업 생산가동 계획(Gartner) : Fujan Jinhua D램('18.9월), XMC 3D 낸드플래시('18.12월)

✓ **메모리 반도체 비중 증가로 국내 제조사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유지는 지속될 전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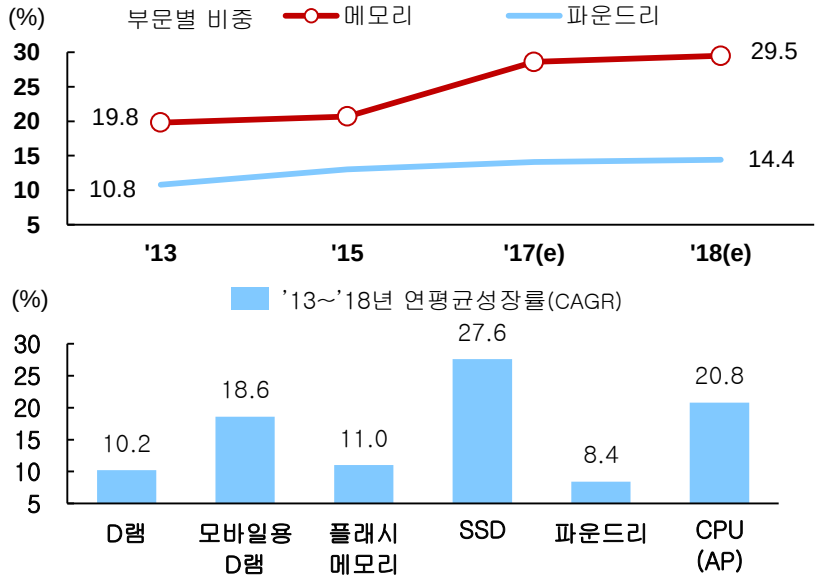
- 비메모리 분야 확대를 위한 환경 구축, 파운드리(반도체 위탁 생산) 부문 강화도 긍정적으로 작용

< 메모리 분야 글로벌 시장점유율 >



주 : '17.Q2기준, 자료 : IHS

< 글로벌 부문별 비중 및 연평균성장률 >



자료 : IHS, NH투자증권

1. 반도체 [전망]

반도체 호황으로 국내 반도체 장비 제조사의 수출 및 수익 급증

✓ **반도체 제조사들의 생산설비 투자 확대로 국내 반도체 장비 판매·수출도 역대 최대 기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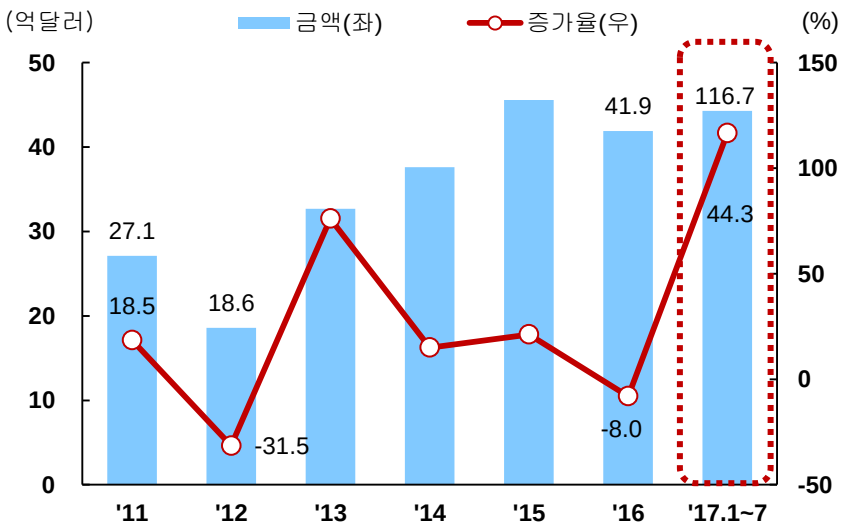
-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16.7% 증가('17.1~7월 누계기준)

✓ **반도체 장비 제조사가 R&D 및 설비투자*를 확대함에 따라 경쟁력도 다소 높아질 전망**

* R&D투자(주성엔지니어링 300~400억원, 유진테크 매출액의 15%), 설비투자(AP시스템 322억원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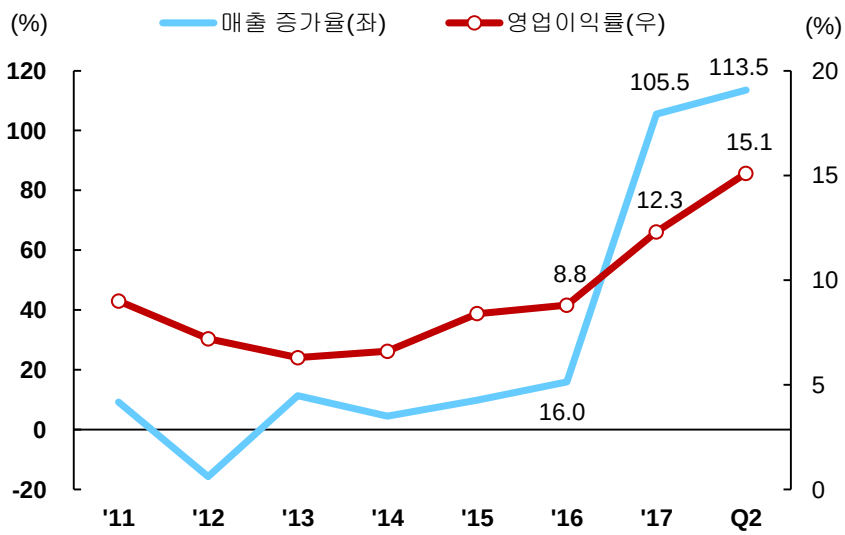
- 다만, 반도체 과잉 공급에 의한 가격 하락시 장비 제조 기업의 수익성이 다소 둔화될 우려

< 국내 반도체 장비 수출 >



주 : 전년동기대비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< 국내 반도체 장비 제조사 매출 및 수익 >



주 :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, 산업처리공정제어장비 제조 부문 외감 이상 348개 기업 대상, 전년동기대비, 자료 : DataGuide, IBK경제연구소

2. 석유화학 [현황]

수출증가 및 원가하락에 따른 수익성 호전 등으로 호황지속

✓ **저유가에 따른 북미·중동 설비 증설 지연으로 글로벌 공급량이 감소되어 수출증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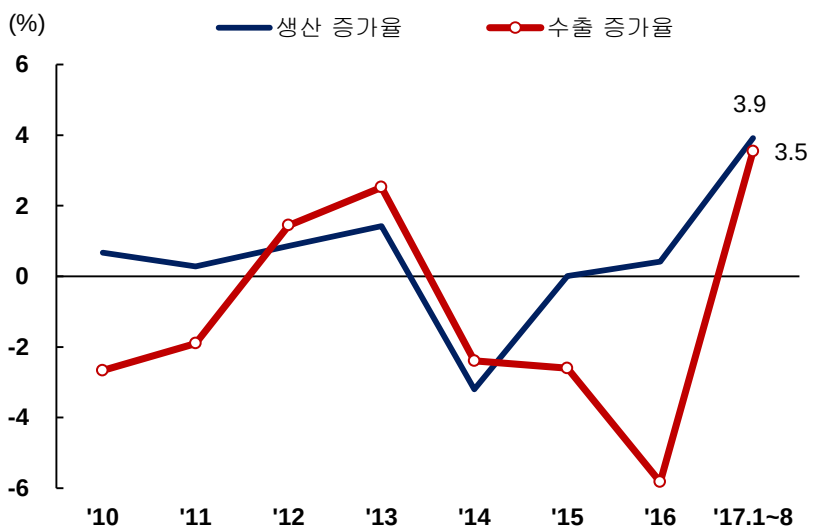
- 3대 유도품(합성수지, 합섬원료, 합성고무) 수출증가로 생산이 전년대비 3.9% 증가

※ 유형별 생산증가율(전년대비, '17.1~8월, %) : 3대 유도품 3.9, 에틸렌 0.1, 프로필렌 6.9, 벤젠 6.5

✓ **납사의 가격경쟁력 유지로 제품 마진이 상승하여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증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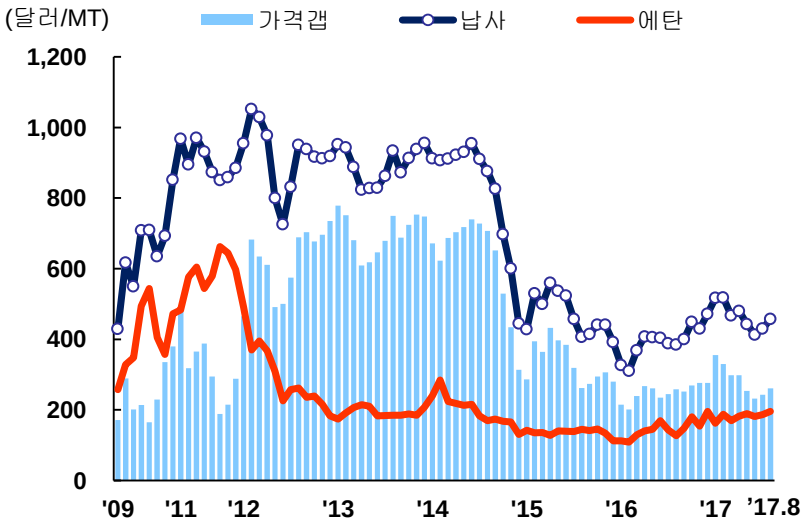
※ 국내 5대 기업(LG화학, 롯데케미칼, 한화케미칼, 금호석유, 대한유화) 영업이익률(%) : 9.3('15) → 13.7('16) → 12.6('17.상)

< 3대 유도품 생산 및 수출 >



주 : 전년동기대비, 자료 : 한국석유화학협회

< 납사 vs 에탄 가격갭 >



주 : '11.Q2까지 분기별, 7월부터 월별 가격, 자료 : Bloomberg

2. 석유화학 [전망]

글로벌 공급증가로 국내 생산 및 수익성이 다소 둔화될 전망

✓ **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국내 석유화학은 완만한 다운사이클 진입 가능성**

- 글로벌 공급증가는 아시아지역에도 수급상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제품 마진 하락
- 다만, 중국은 석탄가격 상승에 따른 설비 증설 지연으로 공급량 둔화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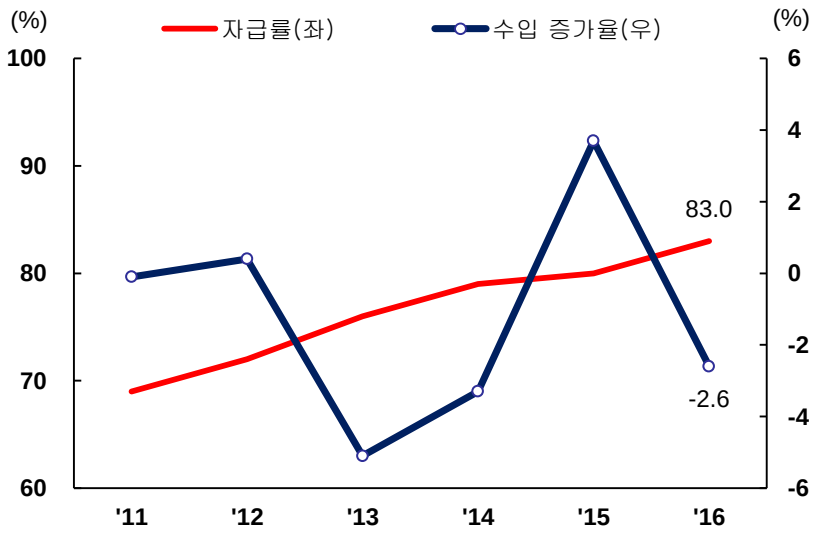
✓ **중국의 자급률 상승과 석유화학제품 수요둔화로 對중국 수출량 감소 예상**

※ 주요 제품별 對중국 수출 비중('06→'16, %) : 기초유분 11.2 → 20.7, 중간원료 19.7 → 42.2, 합섬원료 32.7 → 4.4

< 원재료 가격 변화 >

주 : 월별 가격, 자료 : EIA, 통계청

< 중국 석유화학 자급률 및 수입 >



주 : 3대 유도품기준, 자료 : 한국석유화학협회, 한국무역협회

2. 석유화학 [전망]

북미 천연가스설비 신규 가동 본격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

✓ **'19년까지 미국 등 에탄크래커에 대한 투자확대로 대규모(850만톤) 공급물량 증가**

- 셰일가스 개발 및 수송 인프라 관련 투자확대로 에탄가격의 안정 및 공급량 지속 예상
- 저유가로 에탄크래커의 압도적 원가우위는 크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납사 대비 우위 유지

※ 북미ECC와의 에틸렌 생산원가 차이(달러/톤) : 800('11년, 110달러/배럴) → 230('16년, 50달러/배럴)

✓ **북미의 설비증설이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의한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**

- 운송료 등 고려시 아시아지역을 장악할 가능성은 낮으나 역내수급 및 수익성 하락 초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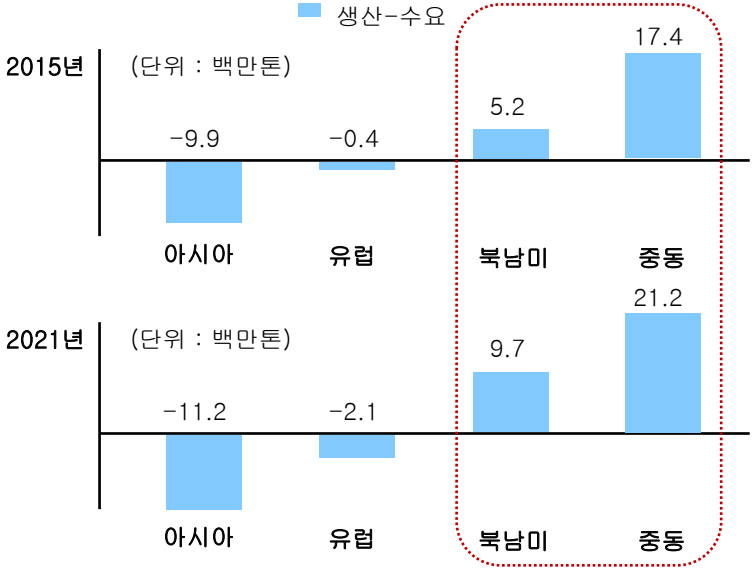
< 북미 에탄크래커 신규 증설 계획 >

※ '17~'20년까지 약 1,100만톤 증설 예정

회사	증설량	유도품	가동시기
Chevron Phillips	150	PE 100	2017
Dow Chemical	150	PE 75, 엘라스토머 50	2017
ExxonMobil	150	PE 130	2017
Oxy/Mexichem	55	PVC	2017
Formosa Plastics	159	LDPE, VCM, EG	2018
Sasol	150	EO, PE, 올레핀, 고무	2019

주 : 만톤, 자료 : S&P Global Platts

< 세계 에틸렌 유도품 수급 전망 >



주 : 에틸렌 유도품 수급은 생산에서 수요를 뺀 양으로, 플러스는 초과공급을 의미, 자료 : 일본 경제산업성

3. 디스플레이 [현황]

국내외 패널 수요증가로 생산 및 출하 확대

✓ **스마트폰용 패널수요가 증가하며 생산은 6.8%, 출하는 7.8% 증가(전년동기대비, '17.Q2)**

- 디스플레이에서 차지하는 스마트폰용 패널 비중도 급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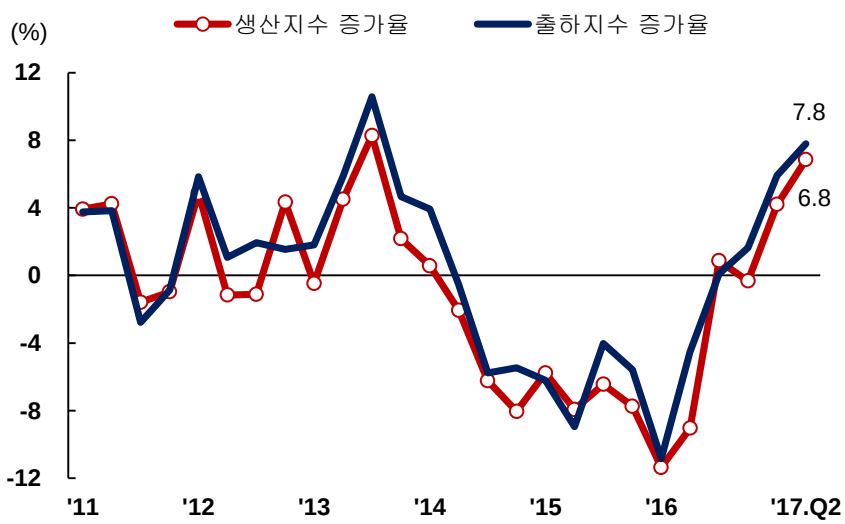
※ 비중('16.상 → '17.상, %) : 스마트폰 67.2 → 71.4, TV 12.6 → 12.3, 모니터 7.2 → 7.2, 노트북 7.1 → 4.6, 테블릿 6.0 → 4.4

✓ **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사의 글로벌 시장점유율도 증가세**

- 중소형뿐만 아니라 대형 OLED 부문에서의 높은 M/S 확보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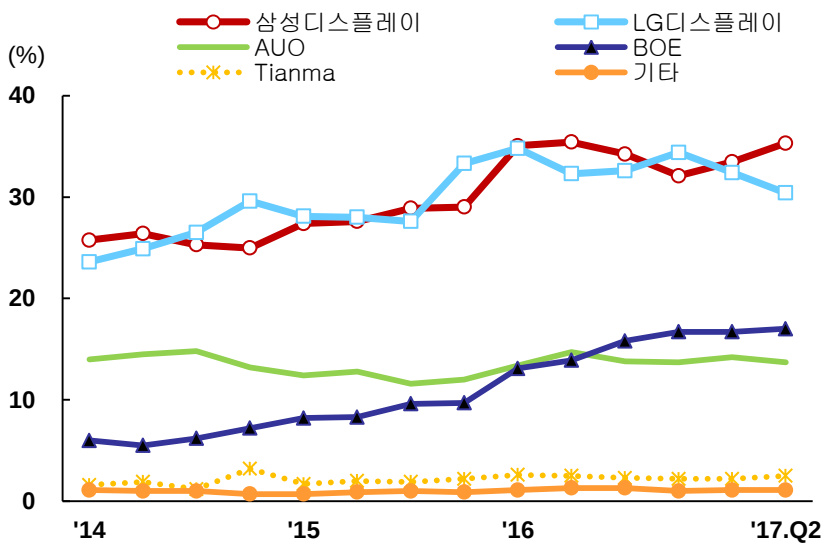
※ OLED 글로벌 M/S('17.Q1, %, IHS) : 중소형 SSD 98.8, 대형 LGD 76.0, SSD 22.0

< 국내 디스플레이 생산 및 출하 >



주 : 전년동기대비, 자료 : 통계청

< 주요 제조사 글로벌 시장점유율 >



주 : 매출액기준, 자료 : WitsView, Bloomberg

3. 디스플레이 [전망]

OLED 중심으로 생산이 확대될 전망

✓ **중소형 패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OLED사용 증가* 영향**

* LCD에 비해 ①얇고 ②가볍고 ③응답속도가 빠른 OLED의 장점 때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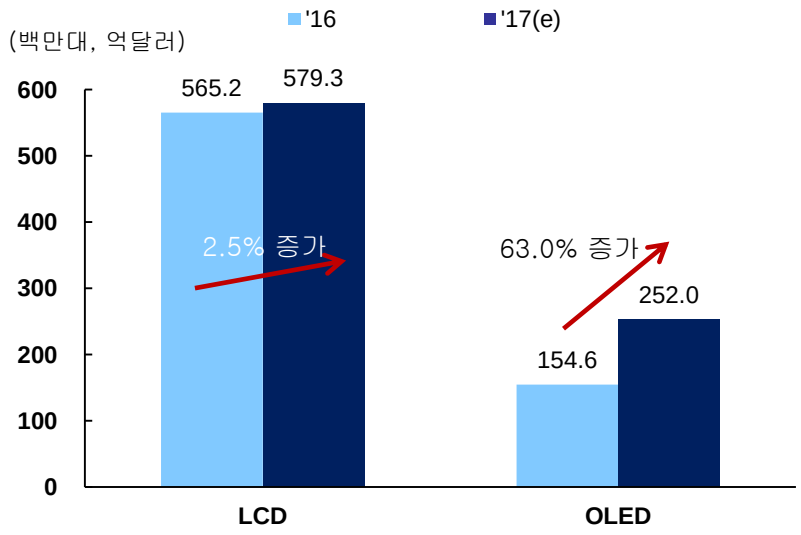
- 스마트폰용 글로벌 패널 출하량에서 차지하는 국내 제조사 비중도 지속 증가할 전망

✓ **TV에서도 OLED 사용* 증가로 OLED 부문의 지속 성장 예상**

* TV부문 OLED 사용 현황 : LG전자('13), 스카이워스, 콩카, 청홍('14), 파나소닉('15), 필립스, 그룬딕 등('16), 도시바, 소니('1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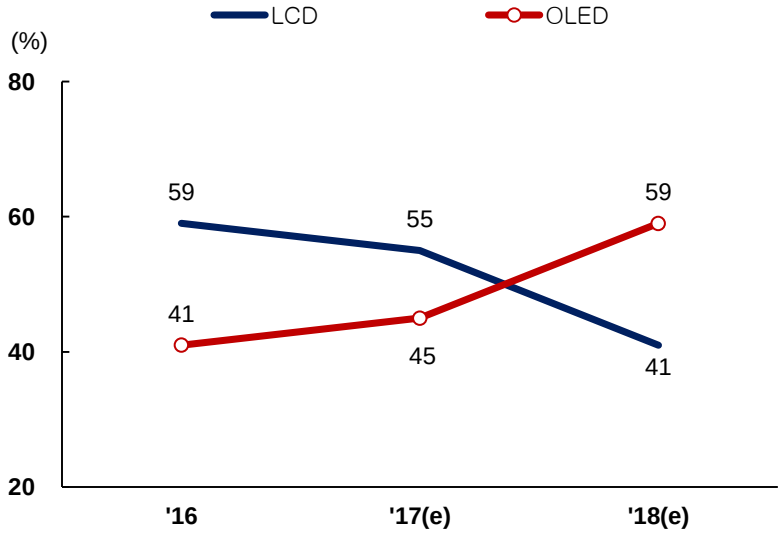
- VR, AR기기 활용도 증가도 OLED 수요확대의 원인

< 디스플레이 글로벌 수요 및 시장 규모 >



주 : LCD는 TV, 모니터, 노트북용 패널 수요 단순합계기준
자료 : IHS, 유안타증권

<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글로벌 M/S >



자료 : IHS

3. 디스플레이 [전망]

설비증설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심화 및 수익감소 우려

✓ **LCD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기업들의 OLED 설비증설로 생산능력이 확대**
-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 A3 라인의 일부가동으로 OLED 생산용량이 10.7% 증가
-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의 설비 증설로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기업의 매출확대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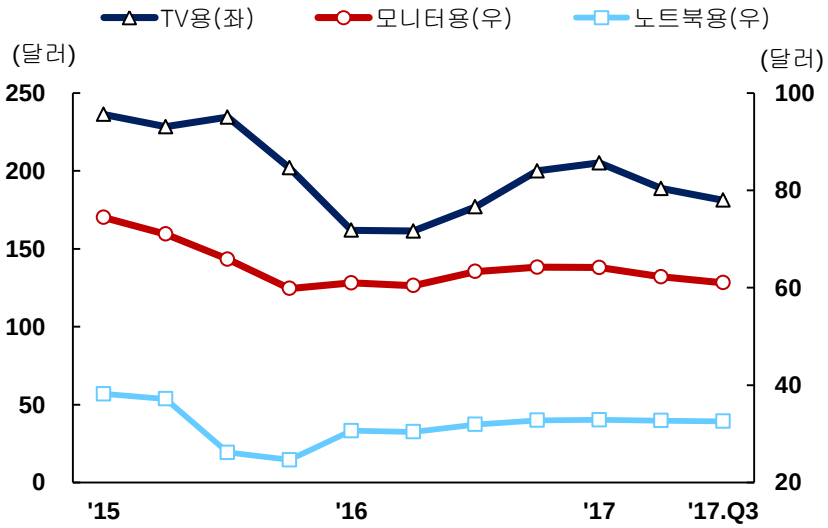
✓ **중국의 LCD 생산능력 향상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인하 등 치킨게임 발생 가능성**
- 특히, TV용 LCD 패널 가격은 이미 '17년 1/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락
- 국내 주력기업의 오너 리스크에 따른 장기 투자전략 미흡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

< OLED 부문 설비투자 현황 >

기업	규모	양산 예정 시기
삼성디스플레이	충남 아산 1조원 포함 약 16조원 규모	'17년부터 일부 가동
LG디스플레이	경북 구미 1.5조원	'17년
	경기 파주 11.99조원	'18년
BOE(중국)	청두 약 15.6조원	'19년 예정
트룰리(중국)	쓰촨성 약 6.8조원	'18년 예정
CSOT(중국)	우한 약 6조원	'19년 예정
비전옥스(중국)	구안 약 5.1조원	'18년 예정
에버디스플레이(중국)	상해 약 4.6조원	'19년 예정
폭스콘(대만 샤프)	약 1.5조원	'18년 예정

자료 :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, 언론보도 종합

< 글로벌 LCD 패널 가격 >



주 : LCD 유형별 글로벌 평균, 자료 : WitsView, Bloomberg

4. 철강 [현황]

건설용 철강의 국내 수요와 수출증가로 전년대비 생산이 확대

✓ **(생산) 건설부문 호조에 힘입어 중후판, 형강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생산증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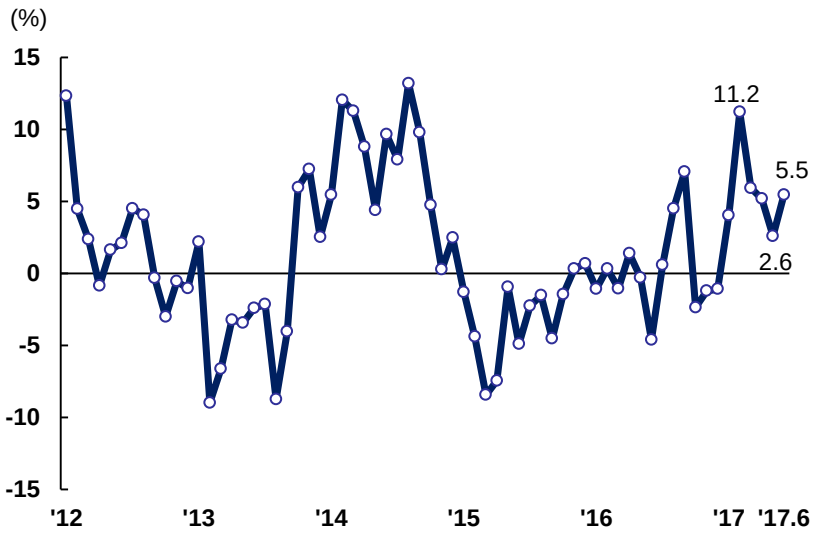
- '17.1~6월 국내 주요 철강재 누적 생산은 5.6% 증가

※ 주요 철강재 생산 증가율(16.상 → '17.상, %) : 열연강판(△3.1 → 7.2), 냉연강판(△2.5 → 9.0), 중후판(△3.1 → △8.9), 형강(△1.1 → △2.7)

✓ **(수출) 미국 셰일가스 생산확대로 유정용강관이 전년동기대비 229.1% 증가하며 수출을 주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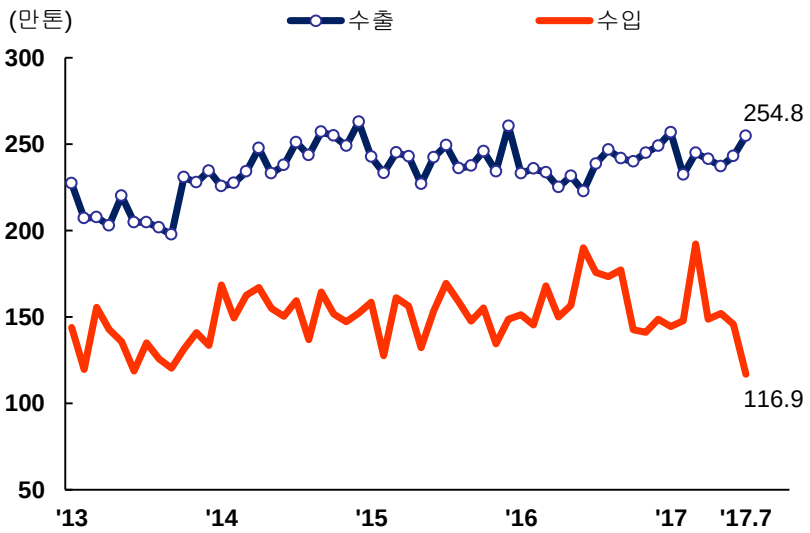
- '17.1~7월 국내 주요 철강재 누적 수출 증가율은 5.5% 기록
- 수입은 중국산 제품이 줄어들며 전년동기대비 20.0% 감소

< 국내 철강재 생산 >



주 : 전년동기대비, 주요 11개 품목 합계, 자료 : 한국철강협회

< 국내 철강재 수출입 >



주 : 물량기준, 주요 11개 품목 합계, 자료 : 한국철강협회

4. 철강 [전망]

중국 구조조정의 반사효과로 국내 철강 수출 및 생산 증가세 지속

✓ **중국 철강 수출량 감소 및 가격 상승으로 국내 제품의 시장점유율 상승 예상**

- 중국 정부의 불량 철강재 퇴출을 위한 산업 구조조정,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 규제 강화 지속

※ 중국 철강 수출량(만톤) : 4,888('11) → 5,573('12) → 6,234('13) → 9,378('14) → 11,239('15) → 10,843('16) → 8,500('17(e))

※ 중국 열연강판 수출가격(달러/MT, 상하이) : 265('15.12) → 340('16.6) → 510('16.12) → 470('17.6) → 600('17.9) → 653('17.12(e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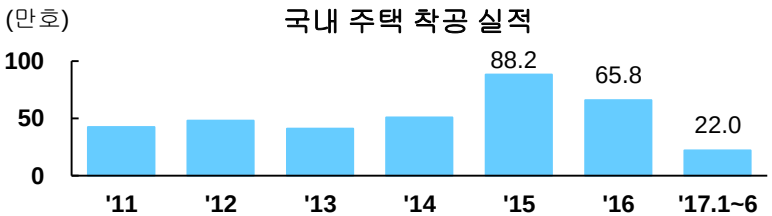
✓ **다만, 자동차 생산 부진, 건설경기 둔화가 예상되어 국내 철강수요는 다소 위축될 가능성**

< 중국 구조조정 및 환경규제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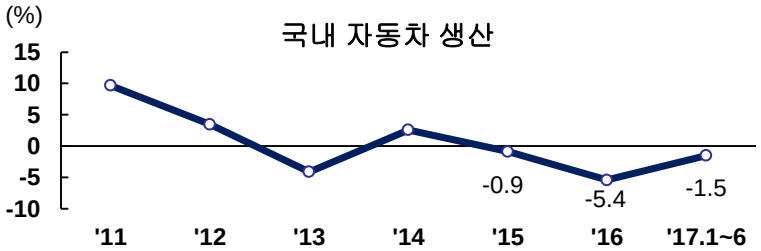
종류	내 용
구조조정	2020년까지 1억5,000만톤 감산 계획 - '07~'15년 연평균 폐쇄량 17.7만톤 - '16년 6,500만톤 설비 폐쇄 - '17년 목표 5,000만톤 중 4,239만톤 폐쇄 완료
	허베이철강과 서우강강철, 바오산강철과 우한강철의 합병이 추진 중으로 완료시 생산량기준 세계 1, 3위를 차지할 전망
환경규제	올 겨울 철강 생산능력 대비 생산량을 절반으로 축소한다는 지침 발표(허베이성)

자료 : 언론 취합

< 전방산업 추이 >



자료 : 국토교통부



주 : 전년동기대비, 자료 : 한국자동차산업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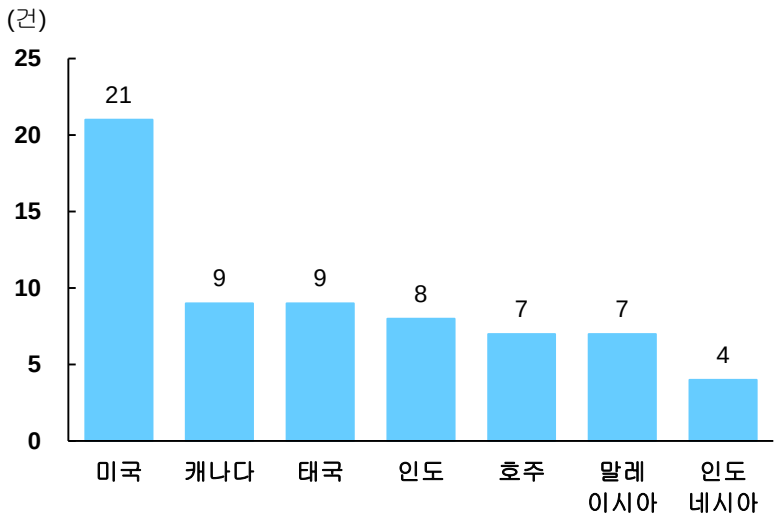
4. 철강 [전망]

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예상

- ✓ **전 세계 28개국에서 총 190건의 對한국 수입규제 중 철강금속이 89건으로 약 절반을 차지**
  - 이 중 미국은 철강금속에 대한 최다 규제국으로 21건의 규제를 부과
- ✓ **미국의 무역확대법 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부과 및 수입쿼터 발동 가능**
  -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대법 232조에 의거 철강 수입에 대한 파급효과 조사 명령('17.4.2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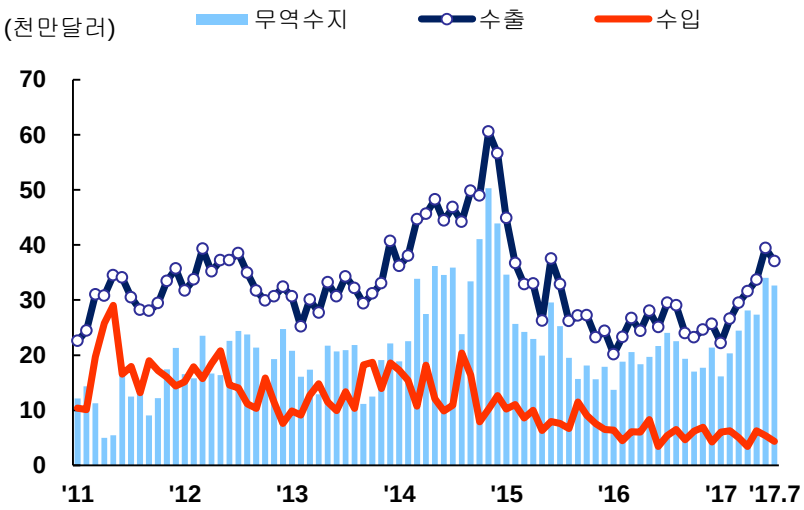
※ 반덤핑, 상계관세 관련 인력을 대폭 증원하며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 피력

<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>



주 : '17.상기준, 자료 : 한국무역협회

< 對미국 철강 무역수지 >



자료 : 한국철강협회

5. 스마트폰 [현황]

글로벌 시장의 성장세 둔화에도 국내 기업의 출하 증가율은 플러스로 전환

✓ **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, 중남미 등 신흥국과 북미·일본에서의 수요증가 영향**

- 대용량, 듀얼 카메라 탑재 등 高사양화로 스마트폰 평균단가(ASP)도 다소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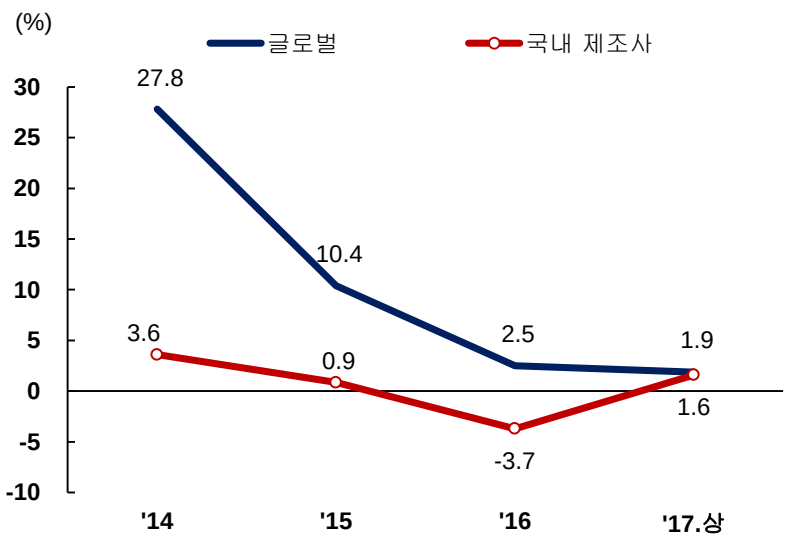
※ 삼성전자 ASP(달러, IDC) : 378.4('13) → 367.2('14) → 343.7('15) → 318.6('16) → 339.9('17.Q2)

※ 국내 제조사 지역별 출하('16.상 → '17.상, %p) : 중남미 5.0, 북미 2.6, 일본 0.9, 유럽 △0.1, 아시아 △0.3, 중동+아프리카 △2.7

✓ **단, 삼성과 애플이 주도하던 시장을 중국 브랜드(화웨이, 오포, 비보)가 빠른 속도로 추격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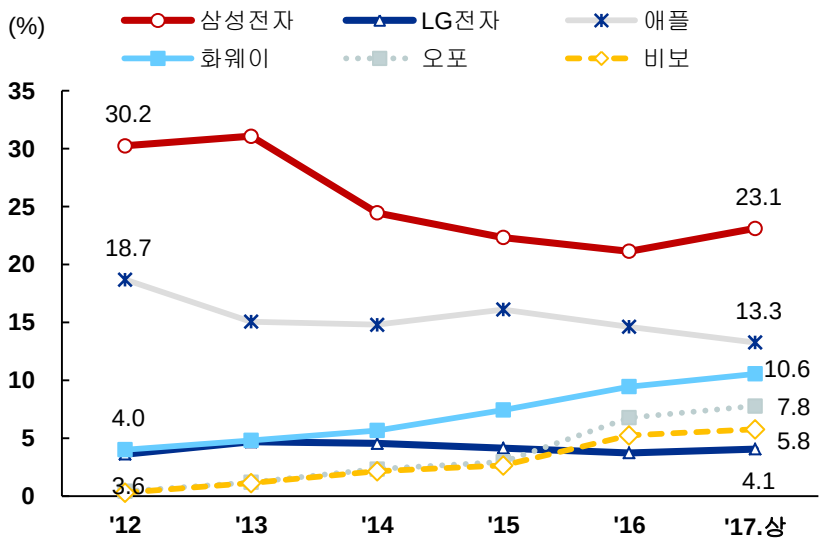
- 중국 3사의 M/S 합계(24.1%)는 이미 삼성의 M/S(23.1%)를 추월

< 스마트폰 출하 >



주 : 전년동기대비, 자료 : IDC, Bloomberg

< 주요 제조사 글로벌 시장점유율 >



주 : 출하량기준, 자료 : IDC, Bloomberg

5. 스마트폰 [전망]

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사의 판매가 증가할 전망

✓ **국내 기업이 주도한 신흥시장의 통신 인프라 확충의 영향으로 스마트폰 수요증가 예상**

- 삼성전자의 인도 전국망 구축, 중남미 차세대 통신 서비스 확대 등 이용 환경 개선

※ 인도 스마트폰 시장 규모(만대, SA) : 1억1,300('16) → 1억3,000('17(e)) → 1억7,010('18(e))

✓ **중국-인도간 무역분쟁으로 국내 제조사의 인도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전망**

- 국경분쟁이 무역분쟁으로 비화되어 중국 브랜드의 입지축소가 불가피(관세 부담, 브랜드 가치 하락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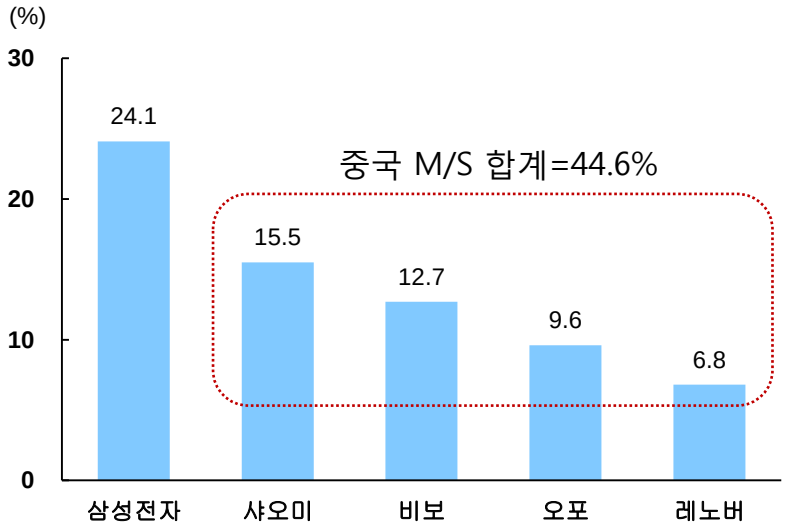
※ 인도 스마트폰 시장 중국 브랜드 시장점유율 : 44.6%('17.Q2기준)

< 신흥시장 통신 인프라 구축 현황 >

지역	현황	시기
인도	삼성전자, 전국망(LTE) 구축 완료	'16.2월
	삼성전자, 5G 네트워크 협력 발표	'17.2월
중남미	삼성전자, 현지 최대 이동통신사 아메리카모빌과 협력관계 협약 · 4.5G 상용화로 차세대 통신 서비스 확대	'17.7월
	KT, 중미경제통합은행(CABEI)과 통신 및 ICT 분야 협력을 위한 MOU 체결	'17.7월

자료 : Bloomberg, 언론보도 취합

< 인도 스마트폰 시장 주요 제조사 M/S >



주 : '17.Q2기준, 자료 : 한국무역협회

5. 스마트폰 [전망]

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및 매출 확대로 국내 부품제조기업의 판매증가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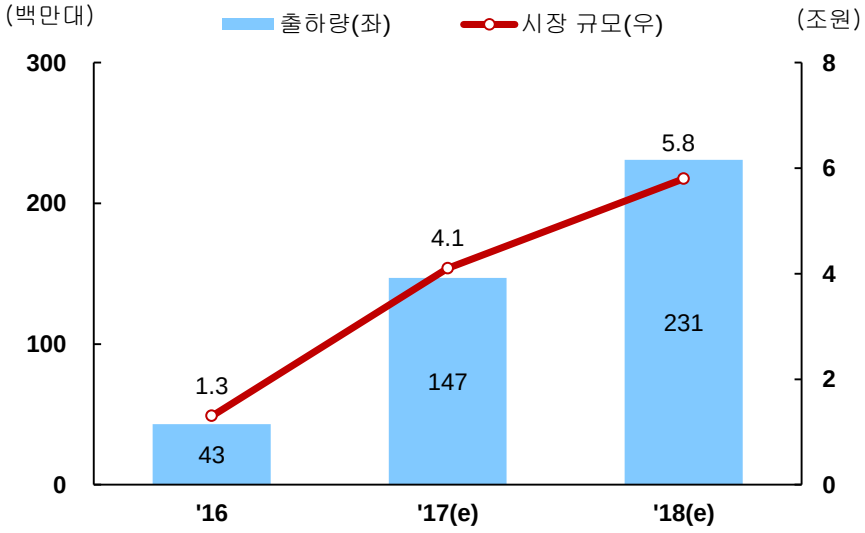
✓ **애플 아이폰8까지 국내 스마트폰용 OLED와 듀얼 카메라를 사용**

-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사도 국내 생산 OLED 사용을 결정함에 따라 수요를 견인
- 카메라 렌즈, 모듈 부품(무선충전용, 지문인식용 등), 메탈 케이스, 인쇄회로기판 등도 매출확대 기대

✓ **5G 통신기술의 확산으로 통신모듈 관련 중소 부품제조기업의 성장도 커질 전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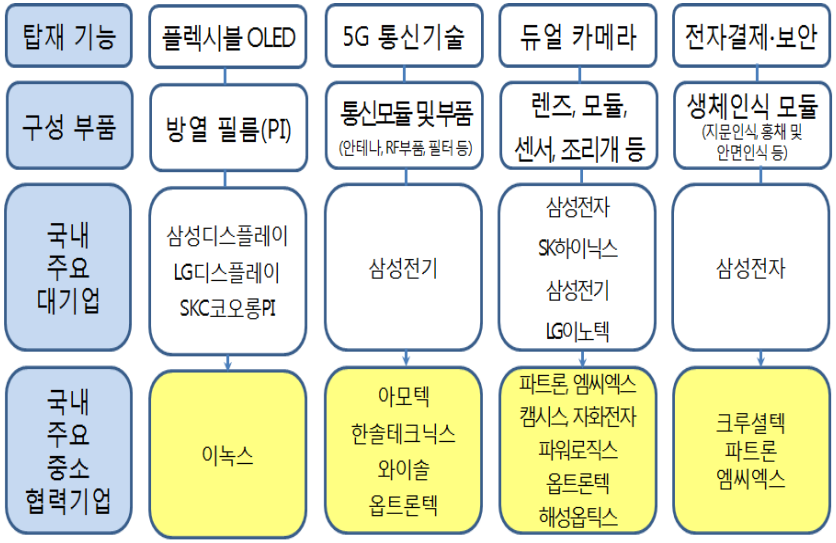
- 전자결제 및 보안시스템 탑재 확산으로 생체인식모듈에 대한 수요도 확대 예상

< 듀얼 카메라 시장 규모 >



자료 : IDC,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

< 프리미엄 스마트폰 국내 주요 부품 공급망 >



주 : 언론보도 등 관련업계 자료를 취합하여 재구성

6. 건설 [현황]

건설 및 부동산 시장은 호황국면 지속

✓ **(건설수주/기성) 건설수주는 전년동기대비 10.4%, 건설기성은 21.0% 증가('17.상)**

- 민간주택 부문이 주도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
- 저유가 지속으로 중동 등의 해외 건설수주는 부진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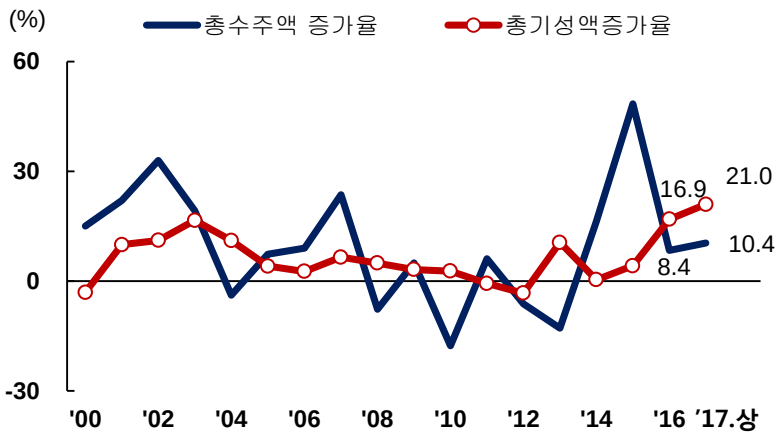
※ 민간주택수주 증가율(전년동기대비, %) : 68.1('15) → 8.2('16) → 3.4('17.1~4월)

※ 해외 건설수주(10억달러) : 46.1('15) → 28.2('16) → 18.0('17.1~8월)

✓ **(부동산 시장) 주택가격 및 거래량 모두 6개월 연속 상승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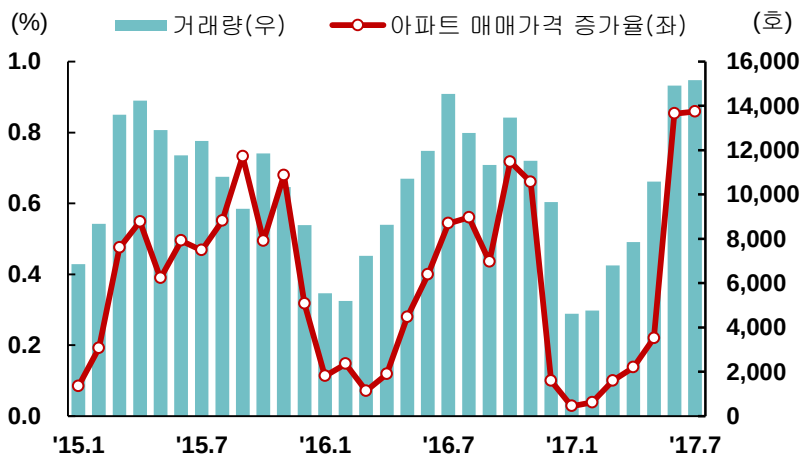
- 서울 아파트 가격 및 재건축 가격이 주택매매 가격 상승을 주도

< 건설수주액 및 기성액 >



주 : 전년동기대비, 자료 : 한국은행

<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및 거래량 >



주 : 전월대비, 자료 : 한국감정원

6. 건설 [전망]

주택 공급과잉에 따라 부동산·건설 경기가 다소 둔화될 전망

✓ **(인허가) '15~'16년 수도권의 인허가는 예년 평균치를 크게 상회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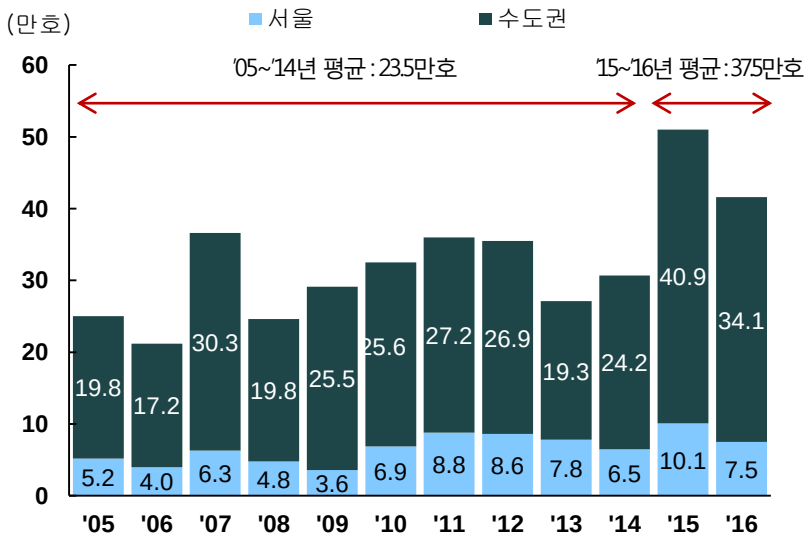
-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최근 '15~'16년 평균(37.5만호)이 과거 10년 평균(23.5만호)을 상회

✓ **(입주물량) '17~'18년 입주물량도 최근 5년 및 10년 평균을 상회할 전망**

- 강남4구 및 경기내 서울 인접지역 등에서의 입주예정 물량도 높은 수준

※ '18년 이후는 입주예정 물량이 과거 평균보다 약 10만호 이상 높을 것으로 추정

< 연도별 서울·수도권 인허가 >



자료 : 국토부

< 수도권 입주예정 물량 >

	10년 평균	5년 평균	'17년(e)	'18년(e)
수도권	19.5	20.5	28.6	31.6
서울	6.2	7.2	7.5	7.4
강남4구	-	1.7	1.9	2.4
경기	11.1	11.5	18.7	21.5

주 : 만호, 자료 : 부동산114 재정리

6. 건설 [전망]

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대책 시행은 건설경기에 부정적 영향

✓ **향후 추가 대책시행이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중장기적으로는 진정될 가능성**
- 거래규제, 대출규제, 세금규제 등 3중 규제로 투기심리 억제와 추가 조치 예상
- 투기지역선정 확대, 보유세 인상, 분양가 상한제,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추가 조치 가능

✓ **참여정부와 유사한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상이할 전망**
- 과거 참여정부 때는 투기억제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 억제에 실패
- 현재의 국내 경제여건(GDP, 가계소득, 부채 등)이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

< 참여정부 vs 신정부 부동산정책 비교 >

	구분		참여정부	문재인 정부
공통점	부동산 정책		지속적인 투기 억제 정책 남발	투기 억제 정책
	주택공급		주택공급 축소('02년 주택보급률 100%)	전체 주택공급 확대(서울 공급 미비)
	부동산 시장	주택가격	주택가격 하락/미분양 일부 해소	주택가격 둔화
		전세가격	전세 및 월세 지속적 상승	관망
	현상		강남 재건축 아파트 사상 최대 폭등	강남 재건축 아파트 급매물 등장
	부동산 및 금융정책		주택거래 신고제,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/투기지역 지정제도	주택거래 신고제, 대출규제, 투기과열/투기지역 지정
	세제강화/혜택		재건축개발 환수금	재건축환수제 부활
차이점	LTV·DTI 규제적용 시점		단계적	일괄적
	종부세		종합부동산세 도입('03.10)	강화 검토
	보유세		보유세 및 취·등록세 강화 (공시가 6억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 종부세 부과)	

자료 : 국토교통부 자료 재정리

7. 도·소매 [현황]

도·소매업 생산이 둔화된 가운데 소매 업태별 성장 차이는 뚜렷

✓ **내수경기가 다소 부진하여 도·소매업 생산 둔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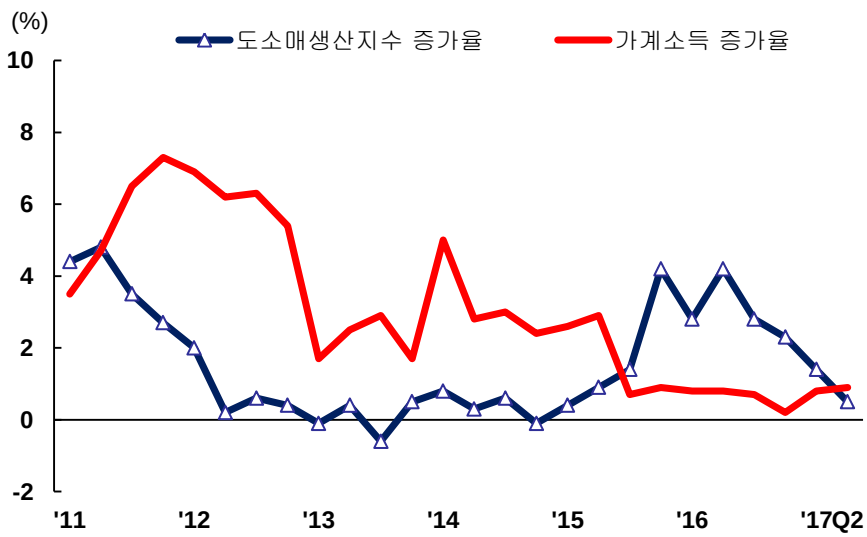
- 가계소득 정체, 중국의 사드 보복 등의 영향

✓ **인구구조 및 소비행태 변화로 소매 업태별 성장 격차 확대**

- 1인 가구 증가, 온라인 소비 활성화로 편의점, 무점포소매 등의 성장세가 뚜렷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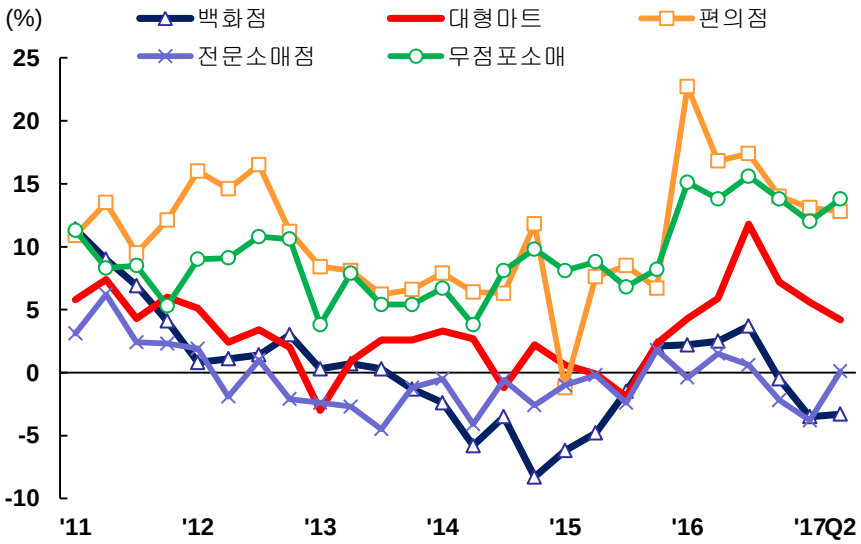
※ 업태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(전년동기대비, '17.Q2, %) : 편의점 12.8, 무점포소매 13.8, 대형마트 4.2, 백화점 △3.3

< 도·소매업 생산 및 가계소득 >



주 : 도·소매생산은 매출액에서 비용(재료비, 감가상각비, 이자, 보험료, 임대료 등)을 제외한 부가가치기준, 전년동기대비, 자료 : 통계청

< 업태별 소매판매액지수 >



주 : 무점포소매는 인터넷, 홈쇼핑, 배달, 방문판매를 의미, 전년동기대비
자료 : 통계청

7. 도·소매 [전망]

온라인·모바일 중심으로 소폭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

✓ **경기회복 기대감에 의한 소비심리 개선이 도·소매 판매에도 긍정적으로 작용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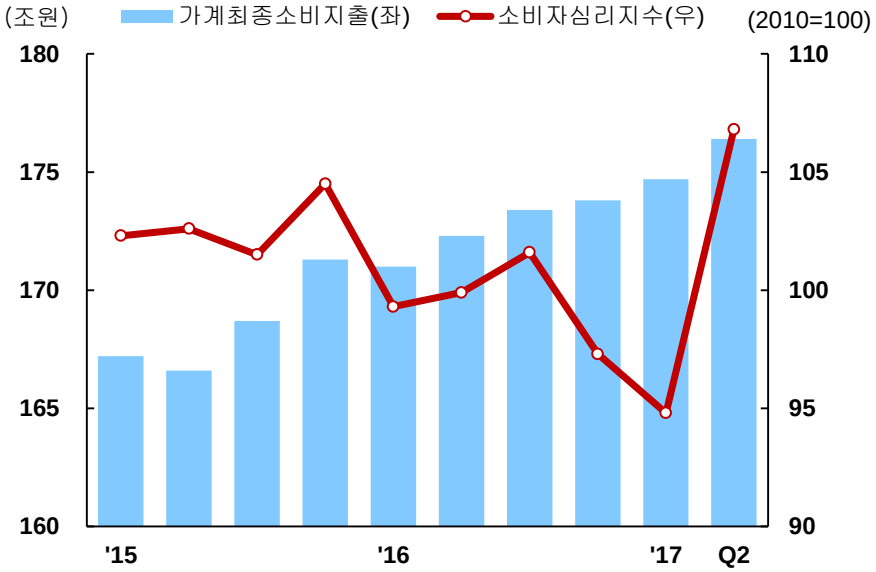
※ 소비자심리지수(2010=100) : 102.0('16.Q3) → 97.3('16.Q4) → 94.7('17.Q1) → 107.0('17.Q2)

✓ **구매행태 변화의 영향으로 온라인·모바일 소매업 위주의 성장 예상**

- 무점포소매점(인터넷·모바일쇼핑, 홈쇼핑 등) 성장이 지속, 특히 모바일 소비가 성장을 주도
- 다만, 북핵 리스크로 인한 외국인 소비감소, 규제강화에 따른 제약 상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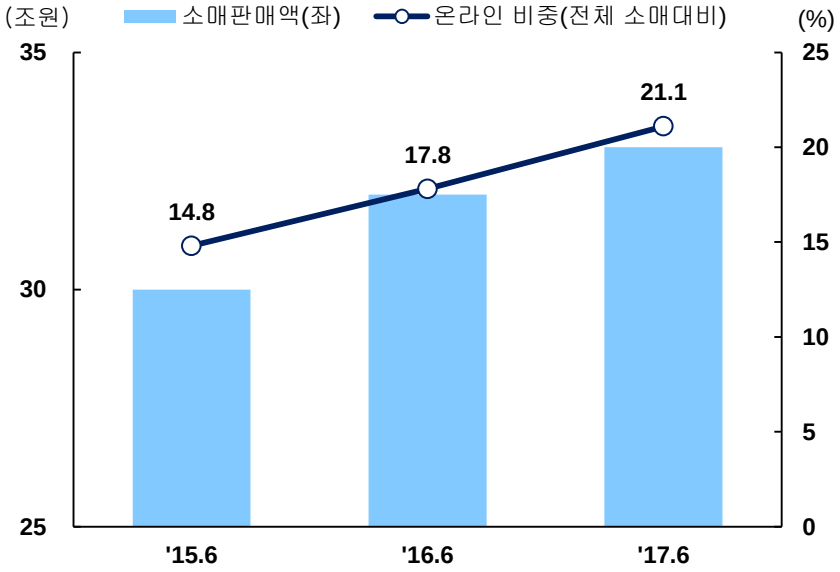
※ 온라인쇼핑 거래액 대비 모바일 금액 비중(%, 통계청) : 44.5('15.Q2) → 52.3('16.Q2) → 60.8('17.Q2)

< 소비자 동향 및 소비 >



자료 : 통계청

< 온라인 소매판매액 >



자료 : 통계청

7. 도·소매 [전망]

유통업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이 도·소매업에 부담으로 작용

✓ **대규모 유통업 규제,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도·소매업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**

- 사업체 규모가 작고, 고정비(인건비, 임차료) 비중이 높을수록 부담 정도가 커질 전망
-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, 중소 납품업체 부담 경감 등 유통업 생태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

✓ **도·소매 유통은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과 각종 규제 영향의 차이가 있을 전망**

< '유통분야 불공정거래 대책' 주요 내용 >

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	✓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('17.12) ✓ 정액과징금 상한액 인상(5 → 10억원)('18)
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	✓ 복합쇼핑몰, 아울렛 규제 대상에 포함('17.2) ✓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시 대형 유통업체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('18) ✓ 구두발주·부당반품에 따른 피해예방('17.12)
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	✓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마련('18) ✓ 유통 업태별 자율 개선방안 지속 점검(상시)

자료 : 공정거래위원회

< 최저임금제 인상 관련 설문조사 >

중소상공인에게 가장 부담된다고 생각되는 일자리 정책은?

최저임금인상	근로시간단축	비정규직 전환	근로감독관 확대 시행
78.1%	9.6%	8.7%	3.5%

최저임금 인상시, 중소상공인에 우려되는 문제점은?

임금부담으로 고용 위축	인건비 증가로 경영애로	여력 없음	없음
32.1%	36.4%	27.2%	4.3%

자료 : 소상공인연합회, 최저임금관련 설문조사('17.7), 응답인원=517

8. 자동차 [현황]

국내 생산량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중국시장에서 판매 부진 심화

✓ **(국내 생산) 친환경차 수출 호조 및 '16년 파업 기저효과로 생산량 소폭(1.3%) 증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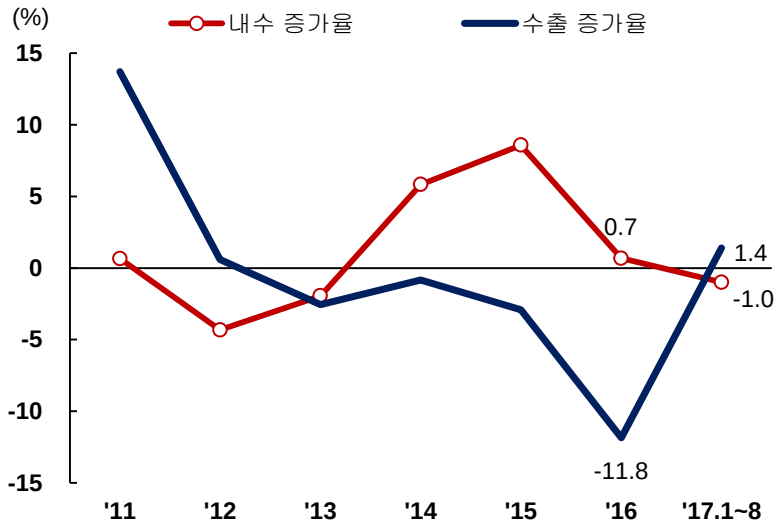
- (내수) 신차 효과에도 불구하고 경차 및 소형차 주력모델 노후화로 판매 부진
- (수출) 친환경차 및 SUV 수출 호조로 수출량(1.4%↑) 및 수출액(6.3%↑) 증가

※ 국내 생산량 증가율(%) : △2.0('12) → △0.9('13) → 0.1('14) → 0.7('15) → △7.2('16) → 1.3('17.1~8월)

✓ **(해외) 국산차의 경쟁력 저하, 로컬 브랜드의 부상 등으로 현지생산 급감(40.3%↓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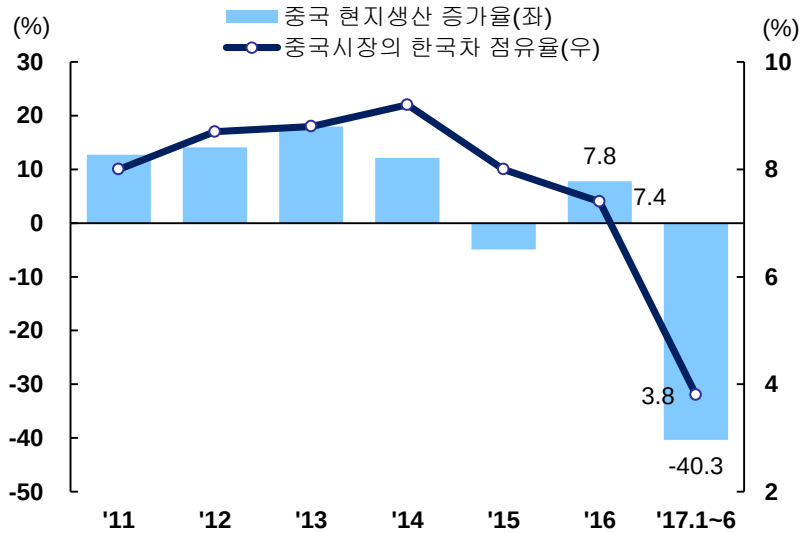
※ 중국 자동차 시장내 M/S('16.1~6월 → '17.1~6월, %) : 한국 7.3 → 3.8, 중국 43.8 → 45.6, 일본 15.9 → 18.0

< 자동차 내수 및 수출 >



주 : 전년동기대비, 대수기준, 자료 : 한국자동차산업협회

< 중국 현지생산 및 시장점유율 >



주 : 전년동기대비, 대수기준, 자료 : 한국자동차산업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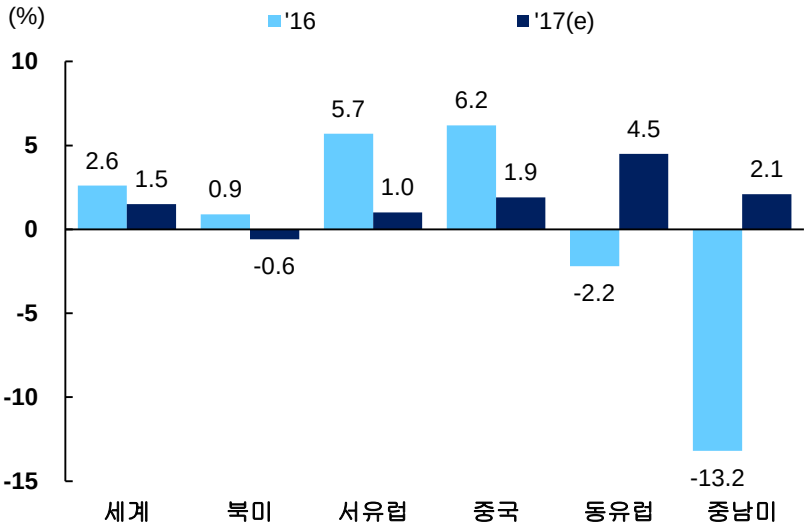
8. 자동차 [전망]

국내 완성차의 내수·수출은 정체, 해외 현지생산은 부진 지속

- ✓ **(국내) 미약한 내수 회복, 해외 현지생산 비중 확대 등으로 내수 및 수출은 정체**
- ✓ **(해외) 세계 자동차시장 성장 정체, 중국내 판매 부진 지속으로 고전 예상**
  - ▪ 중동·중남미 등에서의 판매 부진 지속 및 한미 FTA 재협상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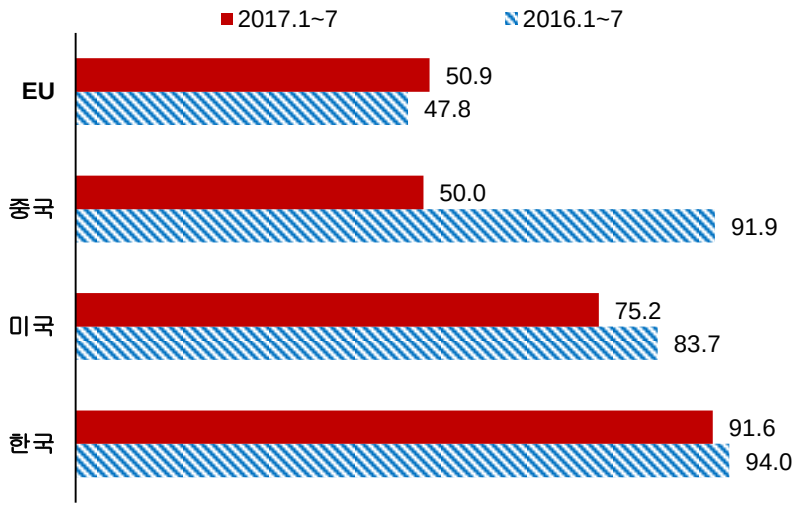
    ※ 미국 요구사항 : 자동차 관세(2.5%) 부활, 공장이전 및 투자 확대, 자동차 수출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등
  - ▪ 중국 로컬 브랜드의 품질과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한국 자동차의 시장점유율 잠식
- ✓ **한국 완성차의 저가전략이 한계에 부딪혀 부품기업에도 부정적 영향**

< 세계 자동차 판매 >



주 : 중대형 상용차제외, 전년대비 증가율
자료 : IHS, LMC Automotive, 한국자동차산업협회

< 현대·기아자동차 국가별 판매량 >



주 : 만대, EU는 1~6월까지 판매량
자료 : 한국자동차산업협회

8. 자동차 [전망]

완성차의 생산·판매 부진으로 중소 자동차부품사의 경영난 가중

✓ **중국·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판매 부진, 현지부품 조달증가 등으로 부품 수출액 감소세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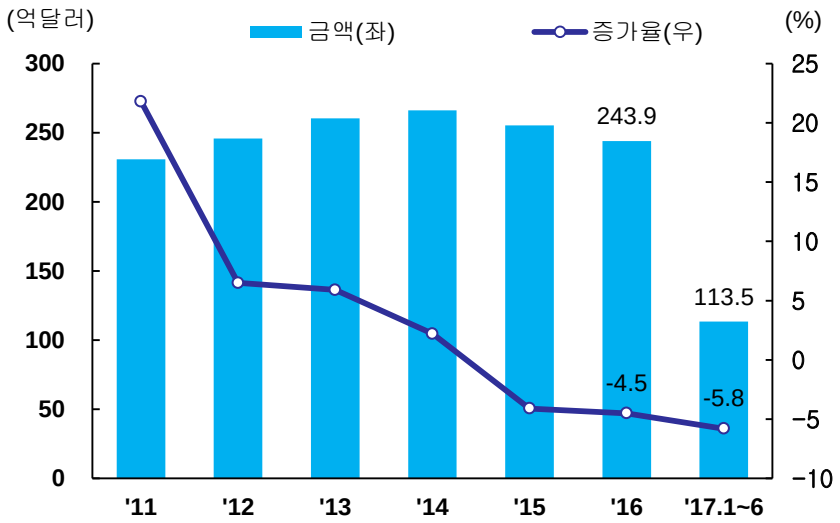
- '17년 상반기 부품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.8% 감소한 113.5억달러 기록

※ 자동차부품 수출액 증가율(%) : 6.5('12) → 5.9('13) → 2.2('14) → △4.1('15) → △4.5('16) → △5.8('17.1~6월)

✓ **국내 자동차부품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율은 둔화 지속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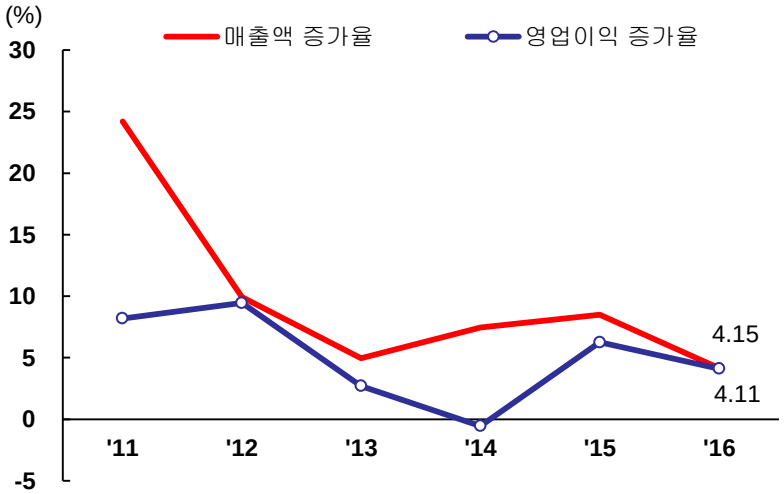
- 완성차 기업의 실적 부진, 기아차 통상임금소송, GM철수설 등에 따른 경영악화 우려

< 국내 자동차부품 수출 >



주 : 품목 MTI742, 전년동기대비, 자료 : 한국무역협회

< 국내 자동차부품사 매출액 및 영업이익 >



주 : 외감 대상 기업 1,467개 합산, 자료 : DataGuide

9. 조선 [현황]

국내 조선 수주는 증가하였으나 생산은 부진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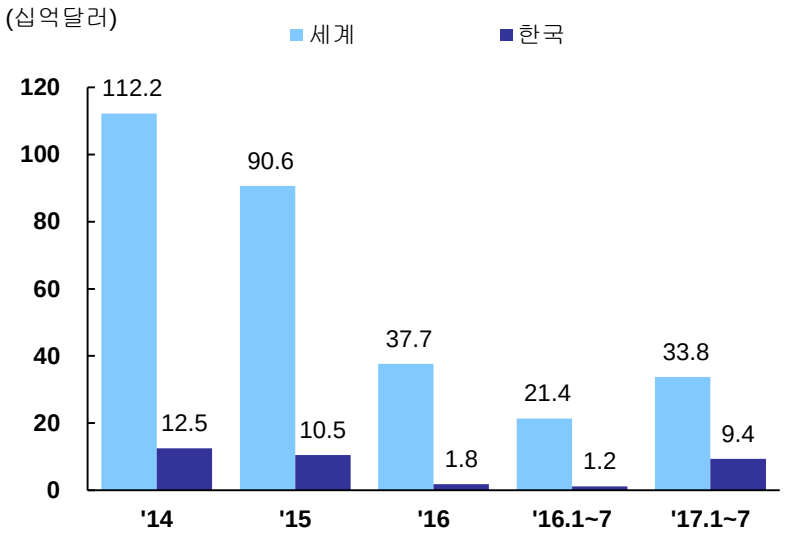
✓ **(국내 수주) 탱커와 LNG선을 중심으로 수주증가, 벌커와 컨테이너는 전무**

- '17.1~7월 국내 조선수주는 96척 340CGT, 금액 94억달러로 소폭 증가
- 세계 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개선되었으나, 아직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

※ 세계 조선 수주액('17.1~7월) : 338억달러(전년동기대비 58.0% 증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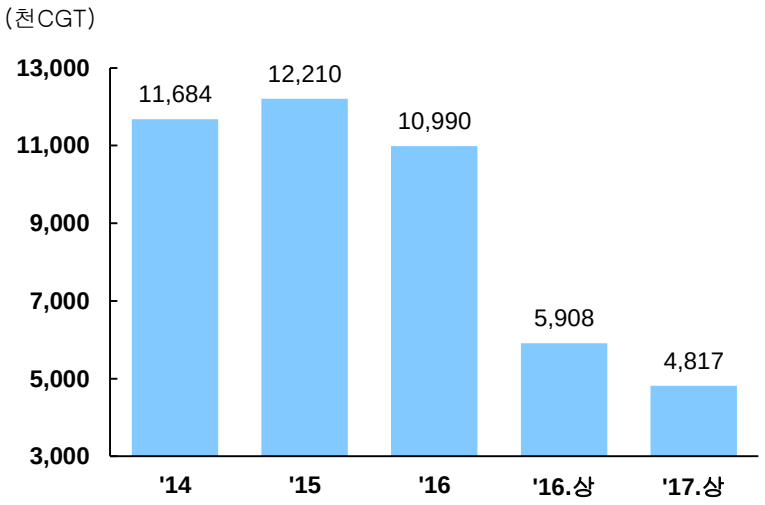
✓ **(국내 생산) '17.상 국내 조선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18.5% 감소한 482만CGT로 부진**

< 세계 및 국내 조선 수주액 >



자료 : Clarkson

< 국내 조선 생산량 >



주 : CGT(Compensated Gross Tonnage), 표준화물선 환산톤수
자료 : 통계청

9. 조선 [전망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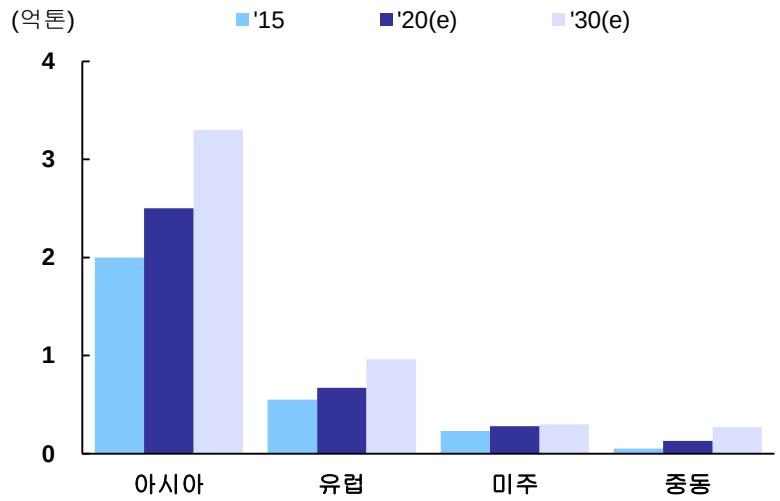
탱커와 컨테이너선 중심의 수주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여전히 부진

- ✓ **(탱커) 환경문제로 석탄, 석유 대신 가스 대체로 LNG 수요증가 및 미국 셰일가스 수출확대**
  - ▪ 유조선은 초과공급으로 부진하나 파나마운하 개통('16.6)과 한·중·일 LNG선의 수요확대

  ※ 아시아 지역 LNG 수입전망(억톤) : 2.0('15) → 2.5('20(e)) → 3.3('30(e))
- ✓ **(컨테이너선) 세계 교역증가에 따른 물동량 확대 및 선대 대형화를 위한 발주증가**

  ※ 1만TEU 이상 초대형선 발주 비중이 82.6% 차지
- ✓ **(생산) 수주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까지 이어지는 시차(1~3년)로 부진 지속 예상**

< 지역별 연간 LNG 수입 전망 >



자료 : 팩츠글로벌에너지(FGE), 중앙일보('17.7.12)

< 세계 컨테이너선 발주 >

TEU 사이즈	발주		
	척수 (척)	용량 (만TEU)	비중 (%)
1만 이상	152	2,316	82.6
5,000~1만	7	46	1.6
3,000~5,000	31	289	10.3
1,000~3,000	161	325	11.6
1,000 미만	11	5	0.2
합 계	362	2,804	100

주 : '17.8월기준, 자료 : Alphaliner

9. 조선 [전망]

구조조정 지속으로 중소조선사는 경영난이 가중될 전망

✓ **(수주확대) 규제로 인한 선박 교체 수요증가 가능성으로 선발주 기대**
- '20년부터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의무화, '24년 선박평형수처리 장치 규약

✓ **(구조조정) 대형사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, 중소조선사는 매출 및 영업이익 하락 지속**
-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기술력을 갖춘 소수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 집중
- 국내 중소조선사는 생산량 감소로 매출 및 영업이익도 큰 폭 감소

※ 국내 중소조선사 생산량(톤) : 50,516('15) → 34,010('16)

< 선박평형수처리 설비 시장 규모 >

	세계	국내
대상 선박(척)	50,000	600
시장 규모(조원)	40~50	20~30
수주액(억원)	35,521	17,307
수주량(척)	6,607	3,066

자료 : 해양수산부, "선박평수관리 협약…", '16.11

< 국내 조선사 매출 및 영업이익 >

	매출액		영업이익	
	대기업	중소기업	대기업	중소기업
'16.1~6	23.6조원	1,425억원	△3천억원	38억원
'17.1~6	17.3조원	902억원	1.1조원	△27억원
증가율 (%)	△26.6	△36.8	455.2	△172.6

주 : 상장사 13개 기업 대상(대기업 4개사, 중소기업 6개사, 중견기업 3개사)
자료 : KED, IBK경제연구소

10. 해운 [현황]

세계 교역량 확대에도 국내 해운 물동량은 해운업 구조조정으로 하락

✓ **(세계) 글로벌 교역량이 확대되며 전세계 해운 물동량은 빠르게 회복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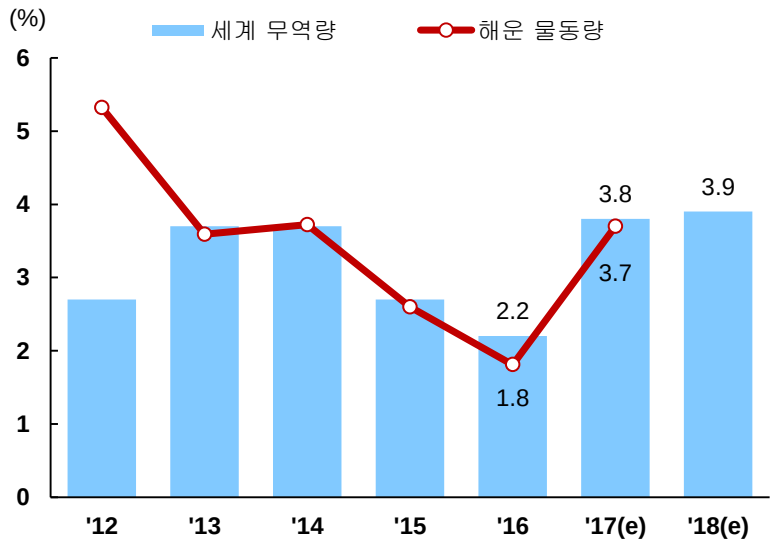
※ 전세계 해운 물동량(%, Clarkson) : 2.6('15) → 1.8('16) → 3.7('17(e))

✓ **(국내)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국내 선복량 하락, 물동량도 동반 하락**

- 국내 컨테이너 선복량은 전년동기대비 62.9% 감소(105만TEU('16.8) → 39만TEU('17.8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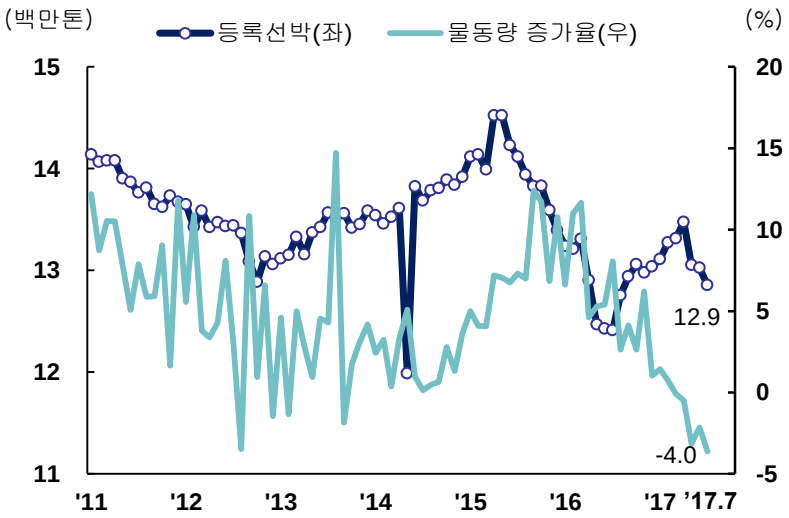
※ 북미 노선 점유율은 10.9%('16.6) → 5.8%('17.6) 하락, 해상운송수지는 사상 처음 적자(4,450만달러, '17.2월) 기록

< 세계 무역량 및 해운 물동량 >



주 : 전년동기대비, 자료 : IMF, WEF, '17.4, Clarkson

< 국내 선복량 및 물동량 >



주 : 전년동기대비, 자료 : 통계청

10. 해운 [전망]

해운 물동량이 다소 증가할 전망이나 국내 해운사 수익 개선은 제한적

✓ **'18년 전세계 교역 증가율은 3~4%대 성장이 예상돼 해운 물동량과 운임 상승 기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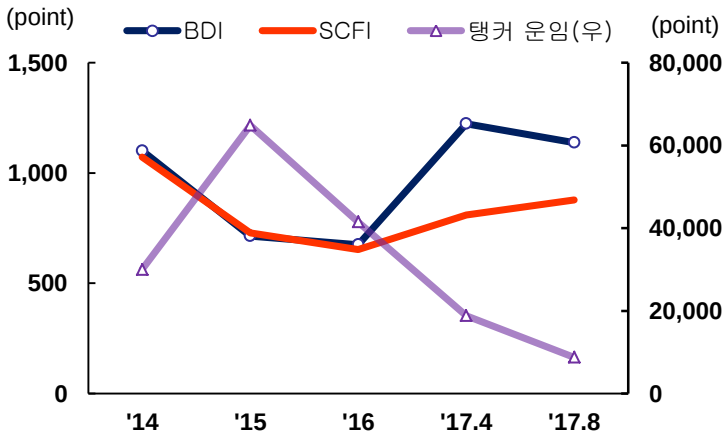
- 건화물(BDI)과 컨테이너화물(SCFI) 등은 초과공급 해소와 물동량 확대로 가격 상승 가능성
- 반면, 초과공급 상태인 유조선 등의 탱커가격은 하락세 지속

✓ **국내 상선 선복량 한계로 국내 선사 비중은 줄어든 반면, 해외 선사 비중은 확대 예상**

- 한진해운 파산 이후 일부 노선은 국내 선사가 인수했으나 주요 항로 대부분은 해외 선사가 인수

※ 부산항 국내 선사 비중(%) : 38.5('16.6월) → 34.0('17.6월), △4.5%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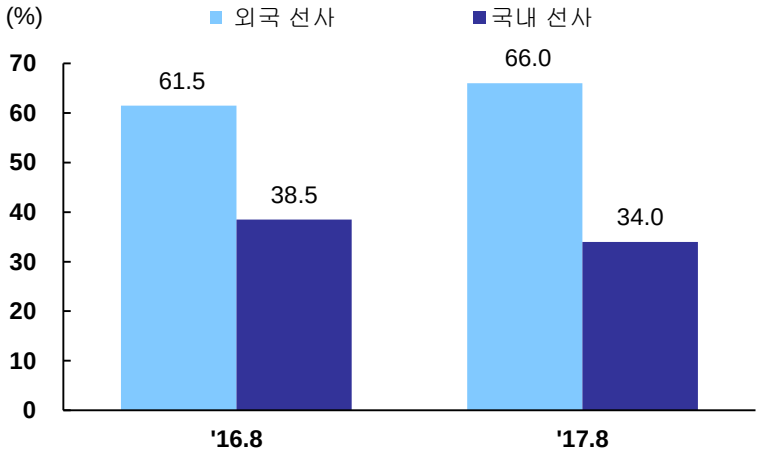
< 해운 운임지수 >



주 : 탱커 운임은 VLCC(Very Large Crude-Oil Carrier), SCFI(Shanghai Containerized Index), BDI(Baltic Dry Index)

자료 : Clarkson

< 부산항 국내 선사 vs 외국 선사 >



자료 : 부산항만공사

10. 해운 [전망]

새로운 해운 얼라이언스 참여 불발로 국내 선사의 점유율 하락 예상

✓ **(얼라이언스 재편) 한진해운 파산 이후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선대 대형화**

- 소수의 선복량 상위 선사들이 중소 선사들을 흡수하며 선대를 확장

※ 머스크, MSC, CMA 등의 점유율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, 국내 선사 점유율은 5.1%('16.8) → 1.9%('17.8)로 하락

✓ **(얼라이언스 참여) '17.4월 글로벌 얼라이언스 재편 때 국내 선사는 참여 불발**

- 기존 4개 → 3개 체재(2M, 오션, 디얼라이언스)로 재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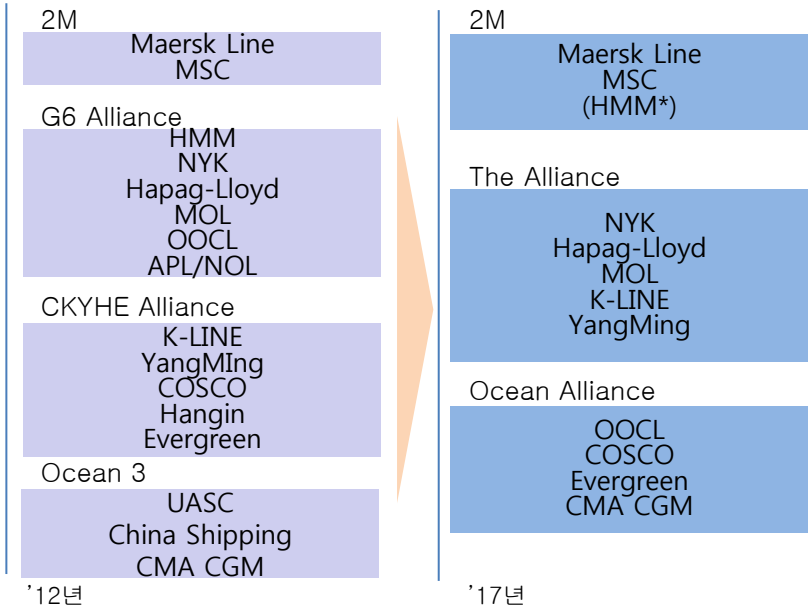
※ 현대상선은 2M과 3년간 전략적 제휴, SM상선은 논의 조차 안됨

< 글로벌 상위 3사와 국내 선사 비교 >

	'16.8월		'17.8월	
	선복량 (만TEU)	M/S (%)	선복량 (만TEU)	M/S (%)
머스크	320	15.4	345	16.7
MSC	280	13.4	309	14.5
CMA CGM	230	11.1	246	11.7
⋮				
한진해운	62	3.0	파산	
⋮				
현대상선	44	2.1	38	1.7
⋮				
SM 상선	신설		5	0.2

자료 : Alphaliner

< 글로벌 얼라이언스 재편 >



주 : HMM은 현대상선, 자료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

※ 본 책자 내용과 관련한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은 IBK경제연구소의 각 담당자에게로 연락바랍니다.

주요산업 황수영 팀장 (☎02-729-6898)		
	반도체, 디스플레이, 스마트폰	: 김지연 차장(☎02-729-6891)
	석유화학, 자동차	: 박선후 과장(☎02-729-6522)
	철강	: 황준성 계장(☎02-729-6258)
	건설, 조선, 해운	: 전준모 차장(☎02-729-6458)
	도·소매	: 송재국 과장(☎02-729-6414)

참! 좋은 은행
IBK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